

한국 문화에 나타난 다문화 인식 양상 고찰

- 인권영화를 중심으로

서 언 주(평택대)

〈목 차〉

1. 머리말
2. 시선의 폭력성, 들어주지 않는 목소리
3. 우월감의 무의식적 매커니즘, '친절'의 실체
4. 맺음말

1. 머리말

인권에 대해 말하는 자리에서 한 법학자가 이야기한 1993년 독일 튀빙엔의 거리 풍경은 사뭇 인상적이다. 독일통일의 후유증으로 실업 등의 문제가 현실화되었던 당시, 격변의 희생자가 된 일부 청년층이 극우적인 테러로 터키인 가족을 계획적 방화로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침묵시위를 벌이던 대학생 시위대가 세워놓은 플래카드는 바로 “Alle Menschen sind Ausländer!(모든 사람은 다 외국인이다.)”였다.¹⁾ 이 구호는 2009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에게도 철학적 사유를 넘어 실천의 차원으로 변모되어야 할 현실로 서있다.

1) 한인섭, 『왜 소수자·약자의 인권인가』,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한국인권재단 엮음, 사람생각, 2000, 18-19면.

요즘 우리 사회에는 지난 과거의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기 위한 다문화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던 초기에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주류문화에 적응하기를 유도하는 용광로 이론(melting pot, 동화주의 모형)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각각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자는 샐러드볼 이론(Salad bowl, 다문화주의 모형)으로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실천의 차원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보통 소수자·약자에 대한 무시와 냉대가 이루어지는 매커니즘에는 ‘그들’을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시선’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또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로서는 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폭행 피해자 등을 추상적인 언어로는 안다고 해도 구체적 인간으로서의 ‘그 누구’로 알지는 못한다. 그럴수록 주류의 가치를 생각없이 ‘내뱉는 데’ 아무 주저함이 없어진다. 그러나 가까운 이웃 가운데 누군가가 그런 체험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느낌은 대변에 달라진다. 우리가 그 이웃과 ‘같은 감수성’을 갖고 그들의 체험과 느낌을 나의 체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약자들을 자신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²⁾

다문화교육은 ‘다름’이 ‘틀림’은 아니며 ‘다름’이 가진 그 다양성의 ‘차이’에 가치가 있음을 일깨워주고 이로 인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은 단지 일상을 떠난 축제의 장처럼 이벤트화되어서도 안되며 잡식성의 전시물을 시각적으로 관조하고 오는 관음증을 만족시키는 정도로 진행되어서도 곤란하다. 다문화교육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한 부분에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이는 각 개인의 정체성교육과도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일련의 활동은 사회적으로는 인권교육과 관계되지만 인권교육이 가질 수 있는 단순성이 가지는 한계, 즉 다양한 인종의 문화적 특수성에 주목하기보다는 타국에서 온 소수자에 대한 배려라는 개념으로만 한정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³⁾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잠깐점적 문화체험식의 교육보다는 다문화가족들의 처지에 공감할 수 있는 사유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자신의 일상의 행태에 대

2) 김정수, 「한국의 여성평화운동과 인권」, 한국인권재단 엮음, 위의 책, 179-201면.

3) 서연주, 「다문화 교육 콘텐츠 구축에서 스토리텔링의 효과」, 『한국문예창작』14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08, 269면.

해 평화의 관점에서 질문하도록 하려면 감수성 훈련이 동반되어야 한다.

감수성 훈련은 자칫 무감각, 무관심해지기 쉬운 문제를 끊임없이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책임적 인식과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⁴⁾ 이렇듯 감수성을 훈련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효과적인 것이 영화를 이용한 교육 방법이다.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지적처럼 어떤 사건은 이야기(story)로 전달되었을 때 공감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사건은 개인이 경험한 것이고 우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야기로 만들어질 때 그 우연성은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보편성을 가지기 때문이다.⁵⁾

다문화교육이 타인의 삶과 문화 그리고 타인과 공존하는 나의 삶에 대한 속고와 성찰을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서 영화는 효과적인 교수매체인 동시에 현상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텍스트이다.⁶⁾ 대중적이고, 누구나 쉽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인 영화는 감수성을 자극하는 데에도 효율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이 같은 가능성에 주목하고 2002년 ‘인권영화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인권위가 만든 영화는 모두 장애인, 이주노동자,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주제로 20분 남짓한 단편 옴니버스로 구성되어있다.⁷⁾ 본고에서는 2003년작 ‘여섯 개의 시선’ 중 「민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2005년작 ‘별별이야기’ 가운데 「자전거여행」, 2006년작 ‘다섯 개의 시선’중 「배낭을 멘 소년」, 「종로, 겨울」, 2008년작 ‘별별이야기 2: 여섯 빛깔 무지개’중 「샤방샤발샤랄라」 등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인식 재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시선의 폭력성, 들어주지 않는 목소리

우리에게는 남과 구분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남과 동일해지는 것에서

4) 김정수, 「한국의 여성평화운동과 인권」, 한국인권재단 엮음, 앞의 책, 179-201면.

5) 지명관, 「한국 현대사와 인권」, 한국인권재단 엮음, 위의 책, 8면.

6) 김연권·한용택, 「영화를 통한 다문화 교수·학습」,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편, 양서원, 2009, 241면.

7) 인권위는 2003년 4월 극영화 ‘여섯 개의 시선’을 시작으로 애니메이션 ‘별별이야기’(2004), 극영화 ‘다섯 개의 시선’(2005), 극영화 ‘세 번째 시선’(2006), 애니메이션 ‘별별이야기2: 여섯 빛깔 무지개’(2008)에 이어 올해 6월에는 청소년의 인권을 다룬 ‘시선 1318’를 개봉하였다.

벗어나고자하는 심리가 있다. 이 양가적인 심리에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어려움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시선'의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시선', '말투'가 구성원들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일상의 시비거리 가운데 시선과 말투에서의 무례함이 빚어내는 권력관계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자신의 언동이 타인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는가에 대해 열린 감수성으로 자신을 다듬는 것이 필요하다.⁸⁾ 이 '시선'이 열린 감수성으로 다스려지지 못할 때 '복제 오리엔탈리즘'으로 변조될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서구의 식민지로 재현되었던 동양, 서구의 타자였던 동양의 이미지에 감염된 무의식이 또 다른 동양을 서구의 방식으로 타자화하여 '복제 오리엔탈리즘'의 시선으로 은연중에 내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⁹⁾

박찬욱 감독의 2003년작 '여섯 개의 시선' 중 「민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는 이 '시선'이 가진 폭력성을 고발한다. 제목부터가 유니크한 이 영화는 정말 민거나 말거나 하고 싶어지는 우리의 인권상황이 철저히 타자화된 한 여성 이주노동자의 눈을 통해 그려진다.

네팔인 노동자 찬드라 꾸마리 구룽은 길을 헤매다 지갑을 잃어 버린지 모른 채 식당에서 라면 한 그릇을 먹는다. 라면 값 실갱이 끝에 식당주인은 경찰을 부르고 한국어가 서툰 찬드라는 정신병자로 오인받는다. 웃지 못할 코미디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원래 네팔의 구룽족은 몽골로이드 혈통이라 한국인과 상당히 유사한 얼굴을 하고 있다. 외모 때문에 한국인이라 오인받은 찬드

8) 한인섭, 앞의 글, 재인용.

9)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동양에 대한 서양의 편견'이다. 그동안 동양은 서양에 대립되는 열등한 존재로 차별받아 왔으며, 그런 의미에서 동양은 서구인의 상상과 의식 속에 재현된 '허상'으로서만 존재해 왔을 뿐, 그 실체는 한번도 나타나거나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에 상응하는 국수주의적, 배타주의적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이드는 지배문화로부터 추방되고 제외된 '타자'의 발견과 인식, 인정을 중요시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식민의 역사를 거쳐 동양을 타자화하는 서양이 구성한 동양의 이미지가 박제화되어왔고 그것이 또한 복제되어왔으며 이에 감염된 우리는 '복제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을 가지고 은연중에 우리보다 산업화나 경제발전이 늦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을 타자화시키는 경향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위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논의는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역, 교보문고, 2007. ; '복제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논의는 이옥순,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 푸른역사, 2002 참조.

라는 경찰서와 수용 시설, 정신병원을 거치며 언어 장애가 있는 한국인 정신 병자가 된다. 찬드라는 계속해서 자기 이름은 찬드라이고, 자기는 네팔 사람 이라고 주장하지만 의사나 경찰들은 정신병자의 과대망상이란 판정을 할 뿐 이다. 심지어 병원에서는 찬드라라는 이름 대신 한국 이름까지 지어준다. 관 계자들이 혹여나하여 문의한 네팔 영사관에는 네팔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녀를 찾기 위해 찬드라의 친구들이 돌린 전단지에는 찬드라 사건을 처 리했던 경찰들에게조차 외면당한다. 이런 무관심 속에 정신병원에서 6년 4개 월이란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찬드라는 네팔인임이 확인된다. 이는 네팔인 이 주노동자 찬드라 꾸마리 구릉씨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영화는 이 끔찍한 실화를 찬드라의 관점에서 카메라를 움직임으로써 우리 사회의 병폐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는지를 고발하는데 집 중한다. 이 사건은 철저하게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상상력이 결핍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찬드라가 만났을 사람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우리와 닮은 외 모의 그녀가 다른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내지 못한 것이다. 국어(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다는 것은 타자화되어 국가의 보호막에서 철저 히 배제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그녀의 네팔어를 어 린 애 수준의 정신지체로 취급하여 버리는 시선에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배 태하고 있는 위계적인 언어관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는 어쩌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미약한 나라에 대해 품고 있는 무의식, 복제 오리엔탈리즘적인 시선이 작동된 것일런지도 모른다. 찬드라의 신원을 확인 하기 위해 데려온 파키스탄인이 하는 말, ‘네팔과 파키스탄은 전혀 다른 나라 이지만 한국인들은 그게 그거인줄 안다’는 지적은 우리가 뼈아프게 새겨들어 야 할 지점이다.

영화의 마지막은 네팔에 돌아간 진짜 찬드라의 모습을 담은 것으로 끝난 다. 정신병원에 얼마나 있었냐는 질문에 “6년 4개월”이라고 또박또박한 한국 어로 대답하는 찬드라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다. 찬드라에게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어떻게 기억되었을까.

기억이란 자신이 지난 날 겪었던 것, 들었던 것, 그리고 스스로 상상했던 것 등을 회고하는 방식이다. 개인의 고유한 경험으로 보이지만 기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되고 저장되고 전수된다. 사회에서 기억할 만한 것이 선택되

고, 선택된 기억은 일상생활 과정에서 변형되고, 회고할 시점의 상황에 따라 재창조되기도 한다. 한 사회의 가치관, 시공간 개념, 언어, 문화 등에 영향을 받아 기억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기억 이론의 창시자인 알박스는 바로 이러한 기억의 사회성에 주목하여 한 사회의 성원들이 의사소통을 통하여 서로 공유하는 기억을 ‘집합기억’이라고 불렀다.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에게 집합된 한국에 대한 기억은 어떤 것일까. 동남아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말 중에 제일 처음 배우는 것이 ‘때리지 마세요’, ‘월급 주세요’, ‘강간 안되요’라고 한다. 풍문일 뿐이라고 외면하고 싶은 이 상황은 이성강 감독의 「자전거여행」에서 재현된다.

2005년 작 이성강감독의 「자전거여행」은 셀 드로잉기법의 서정적인 애니메이션 영상이나 그 내용은 암울한 우리의 처부를 드러내고 있다. 파키스탄인 이주노동자 메하르는 임금 체불과 모욕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불시에 들이닥친 불법체류감시단의 단속을 피하던 중 차에 치여 숨지고 만다.

돈벌러 왔으면 말을 잘 들어야지. 빨갱이 짓을 해? 아프면 병원비 대주고 니들 단속 숨겨주고 불법체류인 주제에 주제파악 못하면 가만이나 있던가. 돈 벌러 왔으면 말을 잘 들어야지. 까만 새끼들이 머리도 안 좋아.

밀린 월급을 달라는 정당한 요구는 ‘빨갱이, 불법 체류자, 머리 나쁜 놈’이라는 언어 폭력과 발길질로 묵살된다. 타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침묵뿐이다. 굴욕에 저항하기 위해 목소리를 드러내자 돌아온 결과는 단속이었고 그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된 것이다. 이 영화에서 주인을 잃고 홀로 굴러가는 메하르의 빈 자전거는 한국 사회에 분명 존재하되 그 존재감을 부여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의 위치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생전의 메하르는 네팔인 애인 알마니의 “우리 소풍갈까”라는 말에 “한국사람들이 보잖아”라며 주저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듯 한국인의 시선에 갇혀 최소한의 권리마저 포기하고 지내던 메하르가 처음으로 낸 정당한 목소리는 폭력으로,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억압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이주해온 동포들에게도 적용된다.

김동원의 「종로, 겨울」(2006년)은 2003년 12월 9일 새벽 중국인동포 김원섭

씨의 동사(凍死) 사건을 다큐멘터리 형태로 증언한다. 당시 김원섭씨는 기독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숙식을 하며 재외동포법 개정과 강제추방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던 중이었다. 늦은 밤 밀린 임금을 받으러 갔다 돌아오는 중 길을 잃은 그는 추위에 떨면서 119와 112에 마지막 도움을 요청했지만 구조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농성장을 지척에 두고 길거리에서 최후를 맞는다. 그의 유품으로 발견된 ‘자유왕래’라는 말이 적힌 쪽지는 중국동포에 한해 재입국을 차별, 규제하는 한국의 단면을 보여준다.¹⁰⁾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 사회는 코리안 드림으로 공동화되었고 가족이 해체되는 고달픈 현실에 놓여있다. 이제 산업현장에서 가사노동까지 조선족동포가 우리 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동영역은 다양해져만 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다문화에 대한 피상적인 인식은 죄책감도 없이 차별의 언어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박힌 반공주의와 맞닿을 경우엔 또 다른 타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지우 감독의 극영화 「배낭을 멘 소년」(2006년)에 등장하는 진선과 현이는 홀로 국경을 넘은 10대 탈북자이다. 죽음의 사투를 거쳐 한국에 온 진선은 학교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너, (북한에서) 인육 먹어봤어?”라는 호기심어린 질문을 받는다. 죄책감이 배제된 거친 시선에 노출된 진선이는 말문을 닫고 외부와의 소통을 끊어버린다. 진선이는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시달리고 아르바이트하는 노래방에서는 사장에게 임금을 떼이는 피곤한 하루를 보내지만 가족이 없기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우는 것으로 외로움을 삼킬 뿐이다. 이런 진선에게 유일하게 의지가 되는 상대는 택배 일을 하는 또래의 현이이다. 언젠든 북에 있는 부모님에게 달려가겠다는 준비로 배낭을 싸든 현이는 자신이 남한 아이들보다 유일하게 잘하는 것은 ‘오토바이타기’라고 생각한다.

못 받은 임금 대신 노래방의 코카콜라를 챙긴 진선과 현이는 배낭이 무거워 택시를 타게 된다. 택시기사의 어디서 왔냐는 질문에 현이는 당당하게 북에서 왔다고 답하자 이들을 간첩으로 오인한 택시기사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

10)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법은 미국, 일본 등 동포이 자유왕래만 허가하고 가난한 중국동포의 입국을 규제했었다. 그러다 2004년 17대 국회에서 개정된 재외동포법으로 김원섭씨가 소원하던 ‘자유왕래’의 물고가 트였다. 법적인 제재는 바뀌었지만 우리 사회가 중국동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겐 여전히 의문이 따른다.

러 달려간다. 이를 지켜보던 진선이는 히스테리증상을 보이며 택시 밖으로 도망치고 얼마 후 현이는 오토바이 사고로 짧은 생을 마감한다. 배낭에 짝 찬 코카콜라의 버거운 무게는 자본주의라는 전혀 다른 체제에 사는 진선이와 현이의 고달픔을 상징한다.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스스로 고립되는 길임을 터득한 진선이는 입을 닫고 침묵함으로써 살아남지만 자신을 당당히 밝히고 남한 아이들과 동등해지고 싶어하는 현이는 그 열망 때문에 죽음을 맞게 된다.

대체로 이와같은 인권 영화의 결말은 타자화된 다문화가족들이 그리워하는 모국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으로 마감된다. 「자전거여행」의 마지막에는 “너한테 네팔의 하늘을 보여주고 싶어”라는 꿈결같은 알마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민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는 네팔로 돌아가 그간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찬드라가 이웃들과 어울려 평화롭게 전통춤을 추는 것을 담아낸다. 그렇지만 이런 결말로 마무리되는 카메라의 시선 역시도 너무 성급한 관용은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Never Ending Peace And Love’ 라는 네팔의 평화로운 풍광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사유의 시간을 던져주지만 이 역시 우리에게 의해 상상된 또 다른 허구적 아시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를 서구의 폭력이 낳은 결과라고 제안한 사이드의 시선 역시도 지배/피지배라는 이분법적인 도식의 한계일 수 있듯이 우리가 재현해내는 이웃 아시아의 풍경 역시도 낭만적 발상에서 초래된 서툰 결론일 수 있다.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응시해야 할 것은 아시아 내부에 존재하는 수많은 차이와 대립, 불균형들이며 이를 주목하면서 그 다성성이 발휘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일일 것이다.

지젝은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에서 포스트이데올로기 시대의 인간은 이데올로기로부터 거리를 둔 냉소적(풍자적) 형태로 이데올로기에 붙들려있다는 공식을 내놓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에서 바로 자신들이 ‘즐길만한’ 뭔가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릇된 것인 줄 알면서도 (거리를 두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그것에 참여하는) 이상한 역설이 생겨나게 된다. 예컨대 90년대 이후의 인종주의, 특히 지젝 자신의 조국인 발칸반도에서 벌어진 인종적 증오와 폭력의 향유는 사실 경악한 서구의 냉소주의와 구조적으로 상동관계라고 그는 역설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다문화가족을 수혜나 연민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한 것 일수

는 있으나 그것 역시 정치적 입장을 넘어선 지점에서 도모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싶다.

‘차이의 인정’ 혹은 ‘정치적 인정’은 문화적 통합을 위한 중요한 초석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새로운 공존의 윤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최종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지금 우리 모두가 직면한 문화적 과제는 궁극적으로 ‘소통가능한 문화’라는 긍정적 통합이다. 이는 개인의 주권성을 인정하며, 그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의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초보적인 전제으로써 인간에 대한 외경심, 인간에 대한 예의에 대해 끊임없이 반문할 수 있는 예민한 감수성을 갖추는 일로부터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3. 우월감의 무의식적 매커니즘, ‘친절’의 실체

오늘날 전 지구적 자본주의는 인종, 성, 계급 등을 매개로 하여 자본주의적 위계질서를 재구성해내고 있다.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제 1세계 국가에서 감정노동을 담당하게 되면서 하나의 서비스 상품처럼 계급화되는 경향들이 형성되고 있다. 이주의 여성화를 주도하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이 일하는 곳이 간호,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으로 가사노동영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즉 이는 후기산업자본주의 시장에서 국가 간 경제격차가 커지면서, 경제부국의 생산노동인력의 재생산 노동을 제3세계 경제빈곤국 여성들이 하는 식으로 국제적 분업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로써 제3세계 여성들은 세계화 과정에서 저임금 재생산 노동을 맡아하는 ‘세계화의 하녀’가 되고 있는 셈이다.¹¹⁾

송해성 감독의 장편영화 「파이란」(2001년)은 자본에 의해서 철저히 타자화된 여성이 쇠락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일본작가 아사다 지로의 소설 「러브레터」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이 영화는 표면적으로는 아름다운 중국인 처녀 파이란과 한국인 삼류건달 이강재의 낭만적인 러브스토리에 가까운 서사구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영화의 심층에는 한국사회의 주변부 계층인 삼류건달 이강재가 건강한 대한남아로 성숙되는 데 이니셔티브이자 희생

11) 라셀 살라자르 파레나스, 문현아 역, 『세계화의 하인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9 참조.

양이 되는 중국인 이주노동자 파이란의 역경이 왜곡되어 있다.

중국 국적을 가진 아름다운 처녀 파이란은 부모가 죽고 난 후 유일한 피붙이인 이모를 찾아 한국행을 감행한다. 그러나 이모는 이미 캐나다로 종적을 감춰버렸고 파이란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나머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남자 이강재와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위장결혼을 하고 위장취업을 한다. 어찌면 미모의 젊은 불법체류자 여성인 파이란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직업이란 몸을 파는 일일런지 모른다. 그렇지만 한국판 「파이란」은 일본 원작소설의 매춘 여성 파이란을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하얗게 빨래를 하는 세탁소 잡역부로 변신시킨다. 이는 파이란이 너저분한 강재의 삶을 세탁해주는 고결한 여성임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이다. 아름답고 성적으로도 순수한 파이란을 표상하는 하얀 빨래. 그 위에 토해낸 파이란의 각혈은 그녀를 처연한 멜로드라마의 청순한 여주인공으로 채색해 놓기에 충분하다. 파이란이 자신의 몸값을 착취하고 있는 소개상에게 간절하게 고통을 호소하지만 이는 철저히 외면당한다. 발에 무좀약을 바르며 “니 돈을 못 받으면 내 발가락이 아파”라고 읊조리는 소개상에게 이주노동자 파이란은 저가로 환산되는 노동력일 뿐이다. 병든 몸의 파이란은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서류상의 남편 이강재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서툰 한국어로 그에게 편지를 쓴다.

“강재씨에게. 강재씨. 저와 결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모두 친절합니다. 모두가 친절하지만 그래도 강재씨가 가장 친절합니다. 저와 결혼 해주셨으니까요. 강재씨 보고 싶어요.” 강재는 파이란의 편지로써 비로소 그녀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남에게 한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었던 삼류건달 이강재가 외로운 불법체류자 파이란에게는 은인으로 기억되는 것이다. 이 아이러니한 만남의 마지막은 ‘파이란 봄바다’라는 실재가 없는 남겨진 이미지, 비디오 속 파이란이 강재 앞에 현현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로써 파이란은 강재에게 완벽한 판타지로 각인되는 것이다. 아름답고 순수하며 헌신적인 이주노동자 파이란에게 자신과 결혼해 준 친절한 삼류깡패 강재씨 역시 현실에서는 마주할 수 없는 상상 속의 존재일 뿐이다. 이는 영화 속에서 낭만적으로 왜곡되어 주변부 인생들의 소외된 삶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교감의 기회를 배제시키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공감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서 요즈음 우리 현실 속 시

공간에서 ‘국제결혼’이란 자본을 획득하기 위한 국제적 비즈니스의 한 사례로 취급하는 경향이 다분하다. 전통, 근대, 탈근대의 문제가 맞물려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 급격히 재편되는 가족구조, 여기서 파생된 다문화가정 역시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큰 숙제이다. 그렇지만 그간 한국사회가 가진 뿌리깊은 ‘순혈주의’ 인식은 엄연히 존재하는 이웃을 배제시켜왔다. 한국사회에서 ‘혼혈’은 서류상 엄연한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형적 특성으로 인해 교우 관계, 가정 형성, 취업과 사회관계 등에서 차별의 대상이 되어왔다.¹²⁾

대개 한국의 혼혈집단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한국전 수행과 미군 주둔으로 한국에 거주한 미군 남성과 한국여성 사이에서 출생한 ‘주둔지 혼혈인’이며, 다른 하나는 1990년대 이후 노동과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한 다양한 아시아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즉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문제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대체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결혼 하에 출생하였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순혈주의’에 위반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종주의적 차별에 직면한다. 외국인 아버지에 한국인 어머니를 둔 경우 ‘한국 남자를 놔두고’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어머니의 성적 취향에 대한 의심과 비난의 시선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러한 차별적 인식은 바로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외국인 어머니는 한국식의 ‘부계혈통’, ‘전통’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혼의 혐의 속에서 가족과 사회의 존경을 받기 힘든 위치에 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시대이나 한국사회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국화’되지 못한 어머니들의 고통은 자녀들의 성장과 교육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¹³⁾

12) 최근 필백재단 1호 장학생으로 1967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로버트 박을 다룬 기사에서 부인할 수 없는 그 차별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 자신이 꿈꾸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온 60대 남성 로버트 박은 주한 미군이었던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얼굴도 모른다. 편견에 가득 찬 주위의 시선, 급우들의 따돌림과 놀림으로 혼혈아인 그에게 한국생활은 상처투성이였다. “장학생으로 선발할 혼혈아를 찾고 있던 필백 여사와 인연이 닿아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소원이 뭐냐고’ 묻기에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난 여기서 미래가 없다’고요.” 콕아람, “영어로 꿈 꿀 수 있을 때까지 필백여사가 한국말 못쓰게 했죠-필백재단 1호 장학생 로버트 박, ‘필백에게 배운 영어’ 퍼내” 2009. 7월 13일 조선일보 A 26면.

그러나 ‘순혈주의’ 전통과 인식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다인종주의,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편견과 배타성을 넘어설 수 있는 인식 전환을 도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민족’을 중심으로 국민국가를 세우려했던 한국의 근대사 과정 중에서 다문화주의의 문제란 인종주의, 민족과 젠더, 혼혈과 식민/탈식민의 문제를 함께 안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의 모형에 의해 디자인된 가족국가라는 표상 시스템, 이처럼 국가화된 균질공간 위에서 “국민적 풍경”이 연출되어왔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시절에 진행된 근대화프로젝트에서 그려낸 한국식 가족은 근대적 자본주의 산업화에 대한 욕망과 한국적 전통 가치의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띤 기초집단이었다. 그리고 이런 기반에서 순혈주의의 밑그림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직조된 ‘가부장주의’, ‘권위주의’, ‘남녀 차별주의’, ‘군사주의’, ‘남성주의’의 풍조는 잠종성을 억압하고 타자를 배제시키면서 균질적이고 평등한 국민으로서의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한국의 사회구조가 급격하게 변모하면서 새로운 이웃의 형태로 등장한 다문화가정은 이런 ‘한국인’되기의 이중고를 지고 있다. 더군다나 여기에 더해진 불쌍하다고 보는 시각, 무턱대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고 예단하는 시각, 위장결혼자가 대다수라고 보는 시각이 더해진 편견은 결혼이민자들에게 문화적 갈등 외에 사회적 갈등까지 야기하는 지점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시선은 ‘복제오리엔탈리즘’적인 인식과 혼합되어 복잡한 문제를 산출한다. 다문화가정에서는 가족구성원간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몰이해¹⁴⁾로 불

13) 전경수·김민정·남영호·박동성 저, 『혼혈에서 다문화로』, 일지사, 2008, 12-31면.

14) 다음 사례들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에서 개발 중인 시범 운영 자료집에 실린 내용이다.

사례 1) 산후조리 음식에 대해-나는 베트남에서 왔다. 아이를 낳은 후 돼지족발을 삶은 국물을 먹고 싶은데 시어머니에게 미역국이 싫으니 돼지족발을 삶아달라고 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너희 나라가 못 살고 잘 몰라서 그렇다. 원래 애를 낳으면 미역국을 먹어야 한다. 돼지족발은 미개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속이 상했다.

사례 2) 어느 시어머니의 말-나는 우리 며느리가 못 사는 나라에서 와서 어린 것이 불쌍하고 해서 그냥 내 말 잘 따라 들으면 잘해줄라고 했지. 요즘 한국여자들이 우리 때 같은가. 아직 그 나라들은 좀 못 살고 하니까 여자애들이 우리 때처럼 고분고분 시어미 말 잘 듣고 남편 잘 섬기고 그럴 줄 알고 데리고 왔지. 무엇하러 말도 안 통하는 애랑 결혼을 시켰겠어. 그런데 아니야 애가 고분고분한 것도 없고, 고집도 세고…….

사례 3) 낮잠자기-나는 캄보디아에서 왔다. 우리나라는 낮 시간이 덥기 때문에 꼭 낮잠을 자야 한다. 한국에 와서도 나는 몸이 한국 시차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고 오랫동안 낮잠을

거저 배우자 및 시부모와의 갈등, 사회적 고립, 인권침해, 가정폭력, 경제적 빈곤, 자녀양육의 문제, 자녀의 사회부적응 등 동시다발적인 문제 상황으로 벌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데는 다수자들(국제결혼가정의 남편과 그 가족 및 이웃)의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폭언 못지않게 ‘그들’을 딱하게 보려는 차별적 ‘친절’의 시각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이 엄마 이름은 구티엔」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는 목적으로 유치원생 정도의 연령을 대상으로 창작된 인권동화이다. 베트남에서 온 구티엔은 구지연이라는 한국이름으로 개명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결혼이민여성이다.

엄마는 은지를 무릎에 앉히고 말씀해주셨어요.

“은지야, 이상하게 생긴 것이 아니고 조금 다르게 생겼지? 눈도 두 개, 귀도 두 개, 코는 하나. 이상하게 생긴 사람은 아니잖나?”

엄마는 며칠 후 은지와 함께 예술이네로 놀러 갔습니다. 예술이 엄마가 만들어주신 궁중떡볶이와 베트남 쌀국수는 정말 맛있었어요.

“어머, 구지연씨는 한국 요리도 잘하시는군요!” 엄마가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술이가 더 기뻐했습니다.

베트남이란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예술이 엄마는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아오자이라는 옷을 입은 예술이 엄마는 친구들과 활짝 웃으며 서 있었어요. “어머, 너무 예쁜 사진이네요. 거실에 걸어두세요.”

“사진 볼 때마다 너무 보고 싶어서 자꾸 눈물나요. 그래서 서랍에 그냥 넣었어요.”

예술이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밑줄 필자)¹⁵⁾

자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낮잠을 즐겨 자곤 한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나를 보고 “못사는 나라 애들이 부지런하기라도 해야지. 저렇게 게으르니까 못 살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왜 시어머니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게으르다고만 여기는 것일까? 여성부 의뢰 (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개발,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시범운영 자료집』 2008. 7 참조.

15) 임희옥 글, 김충식 그림, 「예술이 엄마 이름은 구티엔」(아이코리아, 2008)의 일부분 발췌.

어린이집에 다녀온 은지가 한 아파트에 이사 온 예술이네를 보고 낯설어하자 은지엄마가 은지에게 건네는 말은 ‘친절’한 듯 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편견을 혼용하고 있는 셈이다. “눈 두 개, 귀도 두 개, 코는 하나”라면 ‘이상함’을 벗어날 수 있다는 기준은 눈, 코, 입의 개수를 갖춰야만 “이상하게 생긴 것”, 일테면 괴물이 아니라는 정상과 비정상의 범주를 확실하게 구분하여 이 밖의 것은 ‘괴물’이라는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교육하는 셈이 된다. 이로써 또 다른 이웃의 가능성, 이런 정상의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장애우에 대한 편견을 세워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구지연씨를 동등한 이웃이 아닌 “한국 요리도 잘하는” 가짜 한국인, 내가 마음대로 칭찬해줘도 좋을 평가의 대상으로 격하시킨다. 그리고 이 친절한 타자화의 메커니즘은 예술이마저 자신의 엄마가 가짜 한국인임을 인식하게끔 길들여 갈 것이다. 때문에 구티엔은 자신의 정체성이 담긴 베트남의 기억을 서랍에 넣어둔 채 ‘구지연’으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눈물짓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사이드의 말처럼 그동안 지배문화가 헤게모니를 질 수 있었던 데는 ‘타자의 차별differentiation-타자를 열등한 것으로 제외시키는 차별-’이 있었다. 대개는 타문화를 비하시키면서 ‘자신들의’ 문화의 독창성을 숭상하고 찬양하는 ‘방어적이고 보수적이며 심지어는 편집증적인 국수주의적’ 태도가 있었던 것이다. ‘구티엔’에게 ‘구지연’의 삶을 강요하며 한국인의 기표를 덧씌우고자 하는 태도에는 타자화시켜 차별하고자하는 암묵적 동기가 발동된 셈이다. 침묵한 채 훌쩍이는 엄마의 삶은 예술이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데도 상처가 될 것이다. 때문에 침묵하기 보다는 소란스럽더라도 불만의 목소리가 등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사방사방사랄라」(권미정감독, 2D디지털 애니메이션, 2008년 작)의 은진이 엄마는 건강하다. 그녀의 일상에도 편견이 가득찬 이웃들이 ‘친절’을 가장하여 필리핀에서 온 그녀의 삶을 주시하고 있다. 충분히 지불할 능력이 된다고 함에도 돈 벌러 온 어려움을 다 안다며 더 싸고 질이 좋지 않은 갈치를 비닐에 담아주는 시장통 아주머니나 갈치 고르는 법을 알려준답시고 비닐봉지를 검사하는 이웃 할머니, 그래도 은진이가 얼굴이 하어서 다행이란 위로를 건네는 동네 얘기엄마, 필리핀인이면서도 은진이가 공부를 잘하도록

가르쳤음을 칭찬하는 어르신. 모두가 다정한 듯 하지만 피곤한 이웃들이다. 이들에게 낯을 세우기보다는 웃음으로, 침묵으로 얼버무리는 엄마 때문에 은진은 애가 타지만 이는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은진엄마의 처세법이다.

그렇지만 은진엄마는 억울한 상황에 침묵하지 않는다. 엄마가 필리핀인이 라고 놀려대는 데서 벌어진 아이들의 싸움이 엄마들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자 은진엄마를 두고 빈정대는 한국인들을 향해 은진엄마는 필리핀어를 자신만 만하게 쏟아낸다.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엄마의 모습에 은진이 역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싸움을 걸어왔던 남자아이도 겸연쩍어하며 화해를 요청한다.

공평한 관계란 서로 눈을 맞추고 대등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건강한 사회란 상대의 언어를 들어주는 것, 그 다언어적 상황을 공유할 수 있을 때 그 기쁨이 마련될 수 있음을「사방사방사랄라」를 통해 읽어낼 수 있다. 우리에게 과장된 ‘친절’을 시혜하려는 포우즈보다는 눈을 맞추고 상대의 목소리를 들어주려는 준비가 더 요청된다. 결국 이런 시도들을 통해서 ‘통합’의 내러티브가 생성될 수 있을 것이다.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통합의 내러티브가 창조되고 이는 다문화주의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¹⁶⁾

4. 맺음말

‘다문화’는 이제 한국사회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키워드중 하나가 되었다. 한국사회는 점차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으로 더욱 다양한 사회가 되어갈 것이다. 때문에 이주민들과 소수민족집단 구성원들을 한국사회가 포용하지 못하고 배제하게 되면 이로인해 사회의 새로운 하층계층이 형성되고 이는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게 되는 한 원인으로 전망될 수 있겠다. 따라서 이주민들과 소수민족집단 구성원들이 한국사회의 기회구조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의 미래사회발전을 위해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인적 소통과 교류가 가장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는

16) ‘통합의 내러티브’의 정의에 대해서는 에드워드 사이드, 김성곤, 정정호 역, 『문화와 제국주의』, 도서출판 창, 2002 참조.

한국도 이제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그 정체성을 새롭게 성찰할 때이다.

다문화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인문학이 지향해야할 방향은 열림과 소통, 탈경계와 통합이다. 지금까지 다문화교육의 내용은 주로 소수자의 적응교육, 소수자의 정체성 함양교육에 집중되어 한국사회에 소수자를 하루 빨리 적응 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져 왔다. 즉 문화적 소수자 대상의 한국어교육, 한국 문화교육은 문화적 단일성과 사회적 응집력 유지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소수자들의 문화적 고유성이나 또 상호 문화적 소통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 방향의 ‘한국인화’를 주된 내용으로 삼는 한국의 다문화교육¹⁷⁾은 도리어 다문화적 다양성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타자화하고 ‘차이’를 독선적으로 봉합해버리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다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의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17) 한국의 다문화교육의 실태에 대해서는 양영자, 「한국의 다문화교육 현황과 과제」, 오경석 외 지음, 『한국에서의 다문화 주의』, 도서출판 한울, 2007 참조.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인권위원회, ‘여섯 개의 시선’ (2003)
‘별별이야기’ (2005)
‘다섯 개의 시선’ (2006)
‘별별이야기2: 여섯 빛깔 무지개’ (2008)
- 송해성 감독, ‘파이란’ (2001)
- 아사다 지로, 「리브레터」, 『철도원』, 양윤옥 역, 문학동네, 1999.
- 임희욱 글, 김충식 그림, 「예술이 엄마 이름은 구티엔」, 아이코리아, 2008.

2. 국내저서

-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최,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의 내용과 방법, 2008. 4. 25 제 5차 학술대회 발제집.
-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편,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2009.
- 이재분 외 4인,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실태 연구-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08.
- (사) 국경없는 마을 다문화사회교육원, 「이주민공동체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조사연구: 다문화지도제작」, 2007.
- 서연주, 「다문화 교육 콘텐츠 구축에서 스토리텔링의 효과」, 『한국문예창작』 14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08, 261-290면.
- 여성부 의뢰 (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개발,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시범운영 자료집』, 2008. 7.
- 오경석 외 지음, 『한국에서의 다문화 주의』, 도서출판 한울, 2007.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위임, 『다문화사회의 이해』, 동녘, 2008.
- 이옥순,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 푸른역사, 2002.
- 전경수·김민정·남영호·박동성 저, 『혼혈에서 다문화로』, 일지사, 2008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사회의 전문성 강화와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제 심포지엄포럼집, 2008. 4. 3.

- 평택대학교 다문화센터(연구자 손병돈),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적응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 2008. 4.
- 평택대학교 다문화센터(연구자 이명우, 서연주), 평택대학교 다문화 교육관 운영 프로그램 보고서, 2008. 11.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인식개선 교육강사 양성과정 강의집, 2009. 4.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김연희, 서연주), 이중언어 통역사교육 강의집, 2009. 6.
- 한국인권재단 엮음,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2000.
- 곽아람, “영어로 꿈 꿀 수 있을 때까지 필벽여사가 한국말 못쓰게 했죠-필벽재단 1호 장학생 로버트 박, ‘필벽에게 배운 영어’ 퍼내”, 2009. 7월 13일 조선일보 A 26면.

3. 국외저서

- 關計夫, 『감수성 훈련의 원리와 실제』, 장혁근, 강호기 공역, 형운출판사, 1990.
- 라셀 살라자르 파레냐스, 『세계화의 하인들』, 문현아 역,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9.
-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송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3.
-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역, 교보문고, 2007.
- 에드워드 사이드, 『문화와 제국주의』, 김성곤, 정정호 역, 도서출판 창, 2002.

【국문초록】

본고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주제로 제작한 인권 영화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인식 양상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다문화 교육의 방향에 대해 주목해보았다.

보통 소수자·약자에 대한 무시와 냉대가 이루어지는 매카니즘에는 ‘그들’을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시선’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우리에게 은연중에 내재된 이 ‘복제오리엔탈리즘’적 시선은 ‘차이’를 ‘차별’화함으로써 폭력적 언행으로 노출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또 다문화가족에게 과장된 ‘친절’을 시혜하려는 포우즈 역시 무의식중에 또 다른 배제를 낳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대체로 인권 영화의 결말은 타자화된 다문화가족들이 그리워하는 모국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이 역시도 우리에게 의해 상상된 또 다른 허구적 아시아는 아닌지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응시해야 할 것은 아시아 내부에 존재하는 수많은 차이와 대립, 불균형들이며 이를 주목하면서 그 다성성이 발휘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모두가 직면한 문화적 과제는 궁극적으로 ‘소통가능한 문화’라는 긍정적 통합이다. 이는 인간에 대한 외경심, 인간에 대한 예의에 대해 끊임없이 반문할 수 있는 예민한 ‘감수성’을 갖추는 일로부터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칫 무감각, 무관심해지기 쉬운 문제를 끊임없이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책임적 인식과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감수성 훈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다문화교육의 내용은 주로 소수자의 적응교육, 소수자의 정체성 함양교육에 집중되어 한국사회에 소수자를 하루 빨리 적응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소수자들의 문화적 고유성이나 또 상호 문화적 소통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우리는 다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의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다문화, 다문화가족, 다문화 교육, 인권영화, 차이, 차별, 배제, 관계적 감수성, 시선, 기억, 목소리, 친절, 감수성 훈련, 소통 가능한 문화, 긍정적 통합

【Abstracts】

A Study on Recognizing Multi-Culture in Korean Culture

— Focusing on Human Right Movies

Seo, Yeon-ju

This dissertation examines multi-culture recognition in our society and direction for multi-culture education that our society needs to pursue after, focusing on the human right movies, produced b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under the theme of ‘human right’ for the social weak.

Mechanisms in which minority or the weak are ignored and looked down usually include a ‘view point’ that does not accept ‘them’ as one of ‘us’, human beings with the same individuality. This view point of a ‘Cloned orientalism’, which is embedded in us unconsciously, ‘differentiates’ ‘differences’ and is exposed in violent language and action. Also, a gesture of exaggerated ‘kindness’ for multi-culture family can bring out an outcome that will cause other exclusions.

The end of human right movies show the mother country of alienated multi-culture families miss. This also needs to be examined, as it could be some imaginary Asia that we imagine. What we, as people who live in multi-cultural society, need to examine is the numerous differences, confrontations and disparity that exists in Asia, as well as where the polyphony can be displayed at its best.

Ultimately, the cultural task we all face now is the positive integration, 'Culture that communicates'. This needs to begin with having sensitive 'sensitivity' which will endlessly cross-question the awe and respect for human beings. Therefore, a sensitivity training is required in order to induce recognition on responsibility and action, which will help accepting issues that we are numb to or not interested in, as our own problems.

Until now, multi-culture education started with a purpose of making sure minority adapt themselves to Korean society as soon as possible. However, now is the time we need to examine whether such a process fails to notice the importance of their cultural identity 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keywords : Multi-culture, multi-cultural family, multi-cultural education, human right movie, difference, differentiation, exclusion, relative sensitivity, view point, memory, voice, kindness, sensitivity training, culture that communicate, positive integration.

이 논문은 2009년 7월 31일에 투고되었으며, 2009년 8월 10일에 심사 완료되어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